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lderly Women's Quality of Life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quality of life (QoL) of elderly women a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ir QoL. The data were used 'urvey on the Elderly in 2011', which was held fro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mong the total 15,146 respondents, 3,880 of elderly women whose age was over 65, and who did not live together with their married children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from the fact that the elderly women showed the highest mean in 'contact frequency with friends' among social support, it seemed that the elderly women contacted their friends more than their children in their old age. Among the support types from their children, elderly women received emotional support, physic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in order and irregular cash as a way of economic support. Second, from the regression results, the most critical factor that affected the QoL of elderly women was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level' and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comes next. Third,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subjective standard of living' from path analysis results, and 'subjective physical condition level' and 'total amount of annual income' in order. Also, social supports such as 'phone call contact frequency with children', 'emotional support from children',

* 주저자 : 홍성희(hsh@kmu.ac.kr)

‘phone call contact frequency with relatives’, ‘phone call contact frequency with friends’ positively affected the QoL of elderly women. Therefore, raising social supports from children, relatives, and friends positively contributes to improve the QoL of elderly women directly and indirectly.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upporters, which is a part of the structural aspects of social support, and types of social support, which lies in functional aspects, directly affect QoL of the elderly women and turn out to be factors that improve the QoL as mediating variables. It is concluded that the social supports can be the most important resources that make up declining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in old age and maintain the QoL of elderly women.

Key Words : social support(사회적 지지), emotional support(정서적 지지), instrumental support(도구적 지지), physical support(신체적 지지), economic support(경제적 지지), quality of life(삶의 질)

I.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50년에는 38.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통계청, 2009) 만큼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며, 정책적으로도 노인들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을 돕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가 되고 있다(정경희 · 한경혜 · 김정식 · 임정기, 2006). 또한 개인의 관심이 단순히 장수를 누리하고자 하는 소망에서 성공적인 노화와 행복한 노후의 삶에 모아지고 있으며, 이전의 의존적이고 만성 질병을 가진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노인의 삶과는 달리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장된 노년기에 대한 기대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박진성, 2010).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또는 낮추는 영향요인을 성별, 신체적·인지적 기능, 건강상태, 교육연수, 소득, 배우자의 존재 등 개인적 차이에서 찾아냄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인의 개인적 요인 이외에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등 사회적 요인은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 생활만족과 관련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Rowe & Kahan, 1998).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측면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요인이며, 노년기의 건강상태와 기능 저하, 은퇴와 소득의 감소, 사회적 역할의 감소 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지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김은정 · 정순돌, 2011; 김종임, 2011; 림금란 외, 2011; 김미령, 2012; 전상남 · 신학진, 2014)에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노인의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노년기 삶의 질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박현순·나동석, 2008).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여성노인의 비율은 2010년도에 이미 약 60%로(통계청, 2010), 전체 노인 중 3/5를 차지한다. 여성노인의 기대수명은 길지만 삶의 질의 여러 측면을 보면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 질병수와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평가한 여성의 건강이 남성보다 낮으며(한형수, 2008), 여성노인들이 더 많은 질병을 갖고 있었다(정경희, 1997; Guallar Castillon et al., 2005; 김미령, 2012). 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부정적 영향요소인 우울(김귀분·석소현, 2008)에 대한 연구(정경희, 1997; 김미령, 2012)에서 여성노인의 우울수준이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령(2012)은 노인의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남녀 중고령자, 남녀 고령자의 네 집단의 삶의 질 특성을 비교한 결과 여성 고령자가 질병, 우울, 독립적 경제력 특성 면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성고령자의 삶의 질이 가장 열악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 측면에서는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이 열악하며(Antonucci & Aklyama, 1995; Sierel & Kuykendall, 1990), 남성노인에게는 배우자가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이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가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제로 나타나고 있다(윤순덕·한경혜, 2004; 정경희, 1997). 자녀와의 관계는 다른 사회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영속적인 유대관계로서, 특히 여성은 자녀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주로 맡으면서 돈독한 자녀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 독립한 이후에도 지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자녀로부터의 지지 빈도와 밀도가 높고 다양한 유형의 지지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여성노인의 삶에 큰 지원이 될 것이다. 여성노인은 친구와의 관계

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미령, 2006; Roberto, 1996). 또한 Chou와 Chi(2002)는 친구와의 접촉빈도 이외에 긴밀한 친척의 수가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까운 친척 및 친구는 자녀의 지지를 대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이 남성노인에 비해 낮으며, 이러한 취약성을 가져오는 개인적 차이에 관심을 두어 온 것으로부터 본 연구는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통한 지지, 즉 삶의 질에 대한 배경을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시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적 측면을 세분화하여 여성노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지를 밝혀내는 것도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삶의 질의 개념과 특징

삶의 질이란 삶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삶의 경험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남기민·정은경, 2011). 삶의 질은 일반적인 복지를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삶의 질 형태는 매일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김태현 외, 1998; Diener & Suh, 1997; Lawton, 1997). 즉, 삶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감으로, 개인의 기대수준과 실제가 얼마나 부합하는가에 따라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Albert & Teresi, 2001). 한편 삶의 질 개념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다차원적인 영역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Bowling(2003)은 삶의 질이 객관적, 주관적 영역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김미령(2012) 또한 삶의 질이 삶의 안녕복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느낌 뿐 아니라 객관적 조건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윤혜숙과 윤가현(2003)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삶의 질을 건강, 가족, 대인관계, 살아가는 방식, 일, 여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의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다.

그런데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경우 삶의 질의 개념과 그 영향요인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 즉,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여기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삶의 질 자체와 영향 변수가 서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삶의 질의 결정변수를 파악하는 연구에서는 삶의 질 개념을 보다 단순하게 정의해야 한다(김운정 외, 2008; Stewart & King, 1994)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같은 관점에서 Young과 Longman(1983)은 현재의 삶의 환경 여건,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이 표현한 경험과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하였고, 김태현 등(1999)은 주관적 안녕감의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이처럼 삶의 질의 개념을 주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노인 자신의 지각을 강조하며, 노인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복지감 등으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연장에 따라 노인들이 삶을 어떻게 하면 만족스럽게 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조수범, 2010), Stewart와 King(1994)은 생활만족도 수준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였고,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 패널에서도 삶의 질을 건강상태, 경제상태, 배우자와 자녀 관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와 상대적 삶의 질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김운정 외(2008), 전상남 외(2014)

역시 삶의 질의 측정도구로서 Diener 등(1985)이 개발한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은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와 노인의 삶의 질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관계에 의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 의미 있는 사회적 접촉, 사회적 조직망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Norbeck et al., 1981).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 집단, 지역 사회에 의한 사회적 결속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그 범위로는 가족구성원, 친척, 친구, 동료, 지역사회 등이 된다(남기민·정은경, 2011). 또한 사회적 지지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물질적 원조 및 서비스, 정보, 관심, 사랑, 인정, 이해, 충고, 정서적 위안, 칭찬 등이 포함된다(박미정·엄명용, 2009; 김종임, 2011).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으로 안녕감을 갖게 하거나 신체적 문제, 사회적 문제 등을 완화시켜 노인의 건강 및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Arling, 1990)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 스트레스와 우울을 감소시켜주는 요인(Mazure et al., 2002; 남기민·정은경, 2011; 림금란 외, 2011)이며, 노인들의 행복, 생활만족,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김수현 외, 2008; 김운정 외, 2008; 김종임, 2011; 김미령, 2012; 전상남·신학진, 2014).

사회적 지지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조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차원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존재와 그 결속 정도(이원숙, 1992)를 의미한다. 즉, 구조적 차원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의 유무와 크기, 근접성, 접촉빈도, 안정성, 밀도 등을 포함한다. 기능적 차원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자원의 속성, 즉, 지지의 유형과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 다양한 만큼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능적 차원의 범주에 차이가 있다. 전상남(2012)은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지지를 크게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성한다고 보았다. 정서적 지지는 애정 표현과 존경, 존중을 포함하여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지지이며(전상남·신학진, 2014), 도구적 지지는 신체적 도움을 주거나 일상적 일을 해주거나 도와주는 것 또는 돈을 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포함한 직접적인 행위이다(이금옥, 2007). 김종임(2011)은 노인이 아플 때 치료나 간병을 도와주는 신체적 지지와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제적 지지, 그리고 사랑과 존중·격려·관심사와 걱정거리를 들어주는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차원은 기능적 차원에 비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받는 사람의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능적 차원은 타인이 제공한 자원 및 관계의 질과 적절성에 대한 주관적 인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차원은 양적 특성, 기능적 차원은 질적 특성이라고도 한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때 사회적 지지는 사회활동, 여가활동 등과 함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변수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 대부분의 연구(김은정·정순돌, 2011; 김종임, 2011; 림금란 외, 2011)에서 사회적 지지

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변수로 입증된 선행연구의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취약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거나(Mazure et al., 2002; 남기민·정은경, 2011; 림금란 외, 2011) 신체적·인지적 기능과 자기효능감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매개 효과와 경로를 확인하는 연구들(전상남·신학진, 2014)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다른 변인들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입증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시사되는 것은 노인이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적 요인 및 가족관계와 함께 주요한 삶의 질 영향요인이며, 사회적 지지를 통해 노년기 기능 쇠퇴와 우울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질 저하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3.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 생애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을 모두 동일한 연령집단으로 보는데 무리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노년기를 전기, 후기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김미령(2012)의 연구에서는 고령노인은 중고령노인에 비해 현재의 독립적 경제력이 낮으며 노후 준비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율이 낮았는데, 미래의 경제적 준비 미흡으로 인해 후기노년기의 삶의 질이 취약할 것으로 보였다. 후기노년기에는 건강과 일상생활능력이 저하되므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Hilleras et al., 2001). 박진성(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성공적 노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노년 후기로 갈수록 삶에 대한 만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연수는 삶의 질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권중돈·조주연, 2000),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범·이승훈, 2008).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취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와 참여가 높기 때문에 노년기 삶에 잘 적응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순돌과 이선희(2001)는 학력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변수로,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인들에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부부관계는 기본적인 지지를 제공해 주고,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켜주는 반면 배우자의 상실은 소외감, 고독감을 줄 뿐 아니라 여자노인에게서는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다. 따라서 무배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태가 취약하거나 고독과 우울에 시달리는 심리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정순돌, 2000). 반면 유배우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사별이나 미혼인 독거노인에 비해 높으며(권중돈·조주연, 2000; 정순돌·이선희, 2001; Mannell & Dupuis, 1996), 유배우 노인들이 더 성공적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박경희, 2005; 박진성, 2010)을 볼 때 배우자의 존재는 노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은 사회적, 계층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퇴한 노인들에게 직업 지위는 그 유효성이 떨어지지만 소득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노인의 경제적 여건은 여러 생활영역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노인의 생활만족도 또한 저하된다(박선영, 1999). Larson(1977)은 수입과 주관적 안녕상태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수입에 대한 만족과 행복의 관계가 크다고 하였다. Klemmack 과 Roff(1984)는 경제력이 노

인의 생활만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높은 수입과 경제적 안정은 노인에게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만족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력은 곧 삶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경제적 요인이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상태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송하정, 2001)도 있다. 이와 유사하게 박경희(2005)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수입은 성공적 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건강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객관적,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정순돌 외, 2011; 김미령, 2012; Edwards and Klemmanck, 1973; Berg et al., 2006)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지각으로, 특히 Berg et al.,(2006)는 객관적 건강상태보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김미령(2008)의 연구에서도 여성노인의 건강 관련 변수로서 질병 및 만성질환, 주관적으로 인지된 건강상태를 투입했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년기에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노인의 정신건강, 우울, 행복감,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인, 2009; 남기민·박현주, 2010; 김은정·정순돌, 2011; 김종업, 2011; 림금란 외, 2011). 은퇴와 사회활동의 감소로 생활의 범위가 축소되는 노년기에는 관심과 접촉대상이 가족에게로 집중되는데, 특히 가족중심적인 가치의식이 강한 한국 노인들에게는 노년기에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망이 중요하기(윤현숙·유희정, 2006) 때문이다. 또한 가족은 노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가사노동, 수발, 현금 및 현물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교환, 다양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자원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경희, 2012).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Liang(1980)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 가족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미경, 2002에서 재인용), 박경희(2005)는 성공적 노후의 영향요인으로 가족지지의 영향력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혜영(1988)은 가족의 지지는 장기간 계속되는 문제나 갈등을 중재하는 사회 심리적 변수로서, 일상생활의 적응 및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용민과 이상주(2003)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원망 중에서 가족과의 접촉 질과 접촉 빈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친척, 친구, 이웃과의 접촉의 질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친척, 친구, 이웃보다 가족의 지지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 주요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친구, 이웃,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켜줌으로써 노년기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Crosnoe & Elder, 2002). Chou와 Chi(2002)는 긴밀한 친척의 수,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Robert(1996)에 의하면 여성노인은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적, 정서적, 감정적 지지를 받는다. 이정화·한경혜(2003)는 이웃, 친구수와 노인의 행복감이 관련 있으며, 김미령(2006)의 연구에서는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의 지역에서는 이웃과 서로 도와주는 일이 많고 이주가 잦지 않아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특성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노인은 이웃의 수와 만남빈도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김수현 외, 2008). 따

라서 가족 이외에 친구와 이웃 등도 노년기 여성의 삶에서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이다.

자녀비동거이유, 노후 생활비부담의식, 노후 자녀동거의식은 자녀의 부모 부양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서 모두 자녀와 관련된 변수이다. 노인의 삶의 질과 자녀변수를 직접 관련시킨 연구의 부족으로 자녀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유추할 수 없으나 정경희(2012)는 노인실태 조사에서 부모부양에 대해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가장 높은 반면 자녀의 역할로 보는 노인은 14.2%에 불과한 현상에 대해 노인들은 자신의 부양을 자녀의 역할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 동거에 대한 의식으로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노인이 45.7%인 것에 비해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한 노인은 11.8%에 불과한 결과에서도 노인이 자녀와 동거와 부양을 기대하기 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노후부양문제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충족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여성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는 지지원의 존재와 이들로부터 제공되는 지지의 양적 수준을 의미하며, 지지원으로는 자녀, 친척, 친구를 들 수 있다. 여성노인에게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인 지지의 대상은 자녀이며 (최용민·이상주, 2003; 김종임, 2011), 자녀와의 접촉이 삶의 질에 대한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이웃이나 친지보다 중요한 지지원이라는 선행연구

(김수현 외, 2008)의 결과를 참조하여 사회적 지지의 경로를 자녀 지지의 구조, 자녀 지지의 기능, 친척 및 친구 지지의 구조의 순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여성노인이 비동거 기혼자녀, 친척, 친구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 및 기능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수, 사회적 지지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수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경로는 어떠한가?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국에서 표집한 노인 15,146명 중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녀가 있으며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노인 3,88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기혼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원자료의 68.1%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독거 또는 노인부부가구로, 노인단독가구가 보편적인 노인가구유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로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4개 항목 중 배우자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3개 항목을 합산하여 사용하였고, 신뢰도 계수는 0.624였다.

독립변수로는 여성노인의 연령, 교육연수, 주관적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배우자유무, 노후생활비부담의식, 자녀비동거이유, 노후자녀동거의식 등을 선정

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차원인 지지원의 지지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 친척, 친구들과의 대면 및 비대면 접촉의 빈도를, 기능적 차원으로서 주 지지원인 자녀의 지지유형별 제공정도를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표본의 분석방법은 PC SPSS Program(Ver 21)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고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이 매개변수로서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간접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삶의 질 실태

조사대상 여성노인의 연령은 65세부터 최고 95세까지 분포하였으며, 연령집단별로는 70세-74세의 노인이 31.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65-69세 27.2%, 75-79세 25.0%, 80-84세 11.8%, 85세 이상 노인은 4.6%로, 평균연령은 73.74세였다(표 2 참조). 교육연수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학교는 다니지 못했으나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노인이 28.4%, 무학이며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노인이 16.4%에 달했고, 중학교 졸업자 7.9%, 고등학교 졸업자 6.7%, 대학졸업 이상의 노인이 2.7%의 분포를 보였다. 이들의 평균 교육연수는 4.46년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분석 대상이 여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삶의 질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 1=전혀 만족하지 않음 2=만족하지 않음 3=그저 그렇다 4=만족 5=매우 만족
개인적 변수 연령 교육연수 주관적 생활수준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배우자유무 생활비부담의식 자녀 비동거이유 노후 자녀동거의식	만 연령(세) 교육받은 년수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1=매우 낮다 2=낮은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높은 편이다 5=매우 높다 지난 1년간 가구 총소득(만원)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1=건강이 매우 나쁘다 2=건강이 나쁜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건강한 편이다 5=매우 건강하다 1=배우자 있음 0=배우자 없음 1=생활비 본인 부담 0=자녀 또는 국가 책임 1=본인의 선택에 의한 비동거 0=자녀의 선택에 의한 비동거 1=노후에 자녀와 동거 희망 0=노후에 독립적 생활 희망
매개변수(사회적 지지) 자녀접촉빈도 자녀연락빈도 친척접촉빈도 친척연락빈도 친구접촉빈도 친구연락빈도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신체적 지지 경제적 지지	사회적 지원(자녀, 친척, 친구)과의 왕래빈도 및 전화 등 연락빈도(7점 척도) 1=거의 왕래하지 않는다 2=일년에 한두번 3=3개월에 한두번 4=한 달에 한두번 5=일주일에 한번 6=일주일에 두세번 7=거의 매일 고민, 걱정 상담 제공 정도(4점 척도)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제공 정도 간병, 수발, 병원동행 등 제공 정도 현금 및 현물 제공 정도

성노인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연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노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생활수준은 ‘중간수준’이 4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낮은 편’이 40.3%, ‘매우 낮다’가 11.9%, ‘매우 높다’고 인식한 경우는 0.1%에 불과했다. 주관적 생활수준의 인식은 평균 2.4점으로 중간보다 낮은 편이다. 소득수준은 5분위 중 1분위에 속한 여성노인이 3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분위에 속한 노인이 26.2%이며, 연간 가구총소득이 연간 1,200만원(월 소득으로는 100만원 이하)이

되지 않는 노인이 61.8%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평균 연간 가구총소득이 1,319만원으로 개인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상태는 ‘나쁜 편’이라는 노인이 4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강한 편’인 노인이 24.9%, ‘그저 그렇다’가 22.9%, ‘매우 나쁘다’가 7.1%이며, 평균 2.689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50.7%로서 반 정도에 해당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노

〈표 2〉 여성노인의 일반적 특성 (N=3880)

	변수명(집단)	빈도	%
연령	65-69세	1054	27.2
	70-74세	1218	31.4
	75-79세	971	25.0
	80-84세	457	11.8
	85세 이상	180	4.6
교육수준	무학(문맹)	636	16.4
	무학(글자 해독)	1101	28.4
	초등학교졸업	1472	37.9
	중학교졸업	306	7.9
	고등학교졸업	260	6.7
	대학교졸업이상	105	2.7
주관적 생활수준	매우 낮다	461	11.9
	낮은 편이다	1557	40.3
	그저 그렇다	1688	43.7
	높은 편이다	152	3.9
	매우 높다	5	0.1
총소득(5분위)	1분위(763만원 이하)	1381	35.6
	2분위(764-1193만원)	1017	26.2
	3분위(1194-1849만원)	766	19.7
	4분위(1850-3170만원)	513	13.2
	5분위(3171만원 이상)	203	5.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275	7.1
	나쁜 편이다	1694	43.6
	그저 그렇다	890	22.9
	건강한 편이다	964	24.9
	매우 건강하다	57	1.4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1686	43.4
	배우자 있음	2194	56.6
생활비부담 의식	본인부담	1953	50.3
	자녀 또는 국가 책임	1927	49.7
자녀 비동거이유	본인 선택	1619	41.7
	자녀에 의한 분가	2261	58.3
노후 자녀동거의식	자녀 동거	783	20.2
	독립적 생활	3097	79.8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연령		73.74	5.819
교육연수(년)		4.46	4.190
주관적 생활수준		2.40	.752
총소득(만원)		1319.22	1287.991
주관적 건강상태		2.689	.958

〈표 3〉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실태 (N=3880)

	평균	표준편차
자녀접촉빈도(7)	4.221	1.359
자녀연락빈도(7)	5.222	1.208
정서적 지지(4)	2.818	.740
도구적 지지(4)	2.457	.810
신체적 지지(4)	2.511	.867
경제적 지지(3)	2.338	.661
친척접촉빈도(7)	2.696	1.462
친척연락빈도(7)	3.362	1.431
친구접촉빈도(7)	5.926	1.507
친구연락빈도(7)	4.615	1.909
삶의 질(15)	8.972	1.837

인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이 56.6%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보다 약간 많으며, 노후생활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은 본인 부담으로 생각하는 노인이 50.3%로, 자녀나 국가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노인보다 약간 많은 경향을 보였다. 기혼자녀와 현재 동거하지 않게 된 이유로는 자녀의 취업이나 결혼 등 자녀의 선택이나 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58.3%로 여성 노인이 선택한 경우보다 많았다. 노후 자녀 동거여부에 대해서는 ‘동거하고 싶다’는 노인이 20.2%로 매우 낮은 반면 ‘노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는 노인이 79.8%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보다는 자녀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앞으로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양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계속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실태는 <표 3>과 같다. 사회적 지지 중 자녀와의 접촉빈도는 평균 4.221, 연락빈도는 평균 5.222로 접촉빈도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으며, 연락빈도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에 가깝다.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지지 유형별로는 고민 상담과 같은 정서적 지지가 2.8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간병이나

수발, 병원 동행 등 신체적 지지가 2.511,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를 도와주는 도구적 지지가 2.457이었다. 그러므로 노인이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지지의 유형 중에서 신체적 지지나 도구적 지지에 비해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지지는 평균 2.338로, 평균 2가지 이상의 경제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었다(표 4 참고). 경제적 지지 중에서는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94.4%로 가장 많으며, 현물지원이 92.6%, 정기적 현금지원이 46.7%였다. 그러므로 현금지원은 정기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비정기적으로 명절, 생일 등에 용돈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이외의 사회적 지지로서 친척 접촉빈도는 평균 2.696, 연락빈도는 3.362로 3개월에 한두 번 정도 대면 또는 비대면의 왕래를 하고 있다. 친구접촉빈도는 평균 5.926회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만나며, 연락빈도는 4.615회였다. 친구 접촉빈도는 사회적 지원과 대면 및 비대면 접촉 중 가장 높은 평균을 보임으로서 친척은 물론 자녀보다 더 자주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연락빈도는 자녀연락빈도보다 낮지만 친척연락빈도보다 높았다.

〈표 4〉 경제적지지 실태 (N=3880)

		빈도	백분율
정기적 현금 지원	있다	1812	46.7
	없다	2068	53.4
비정기적 현금 지원	있다	3664	94.4
	없다	216	5.6
현물지원	있다	3595	92.6
	없다	285	7.4

2.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지의 구조(자녀, 친척, 친구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 사회적 지지의 기능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5>, 상관관계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상관관계와 공선성 진단을 통해 공차한계 값이 .10보다 크고 VIF 값은 모두 1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이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생활수준,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총소득, 자녀 비동거이유, 생활비부담의식, 교육연수, 친구 접촉빈도, 자녀접촉빈도, 친구연락빈도, 도구적 지지, 자녀연락빈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생활수준을 양호하다고 인지할수록,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총소득이 많을수록, 본인이 자녀와 비동거를 선택한 경우, 노후생활비를 본인 부담으로 생각하는 경우,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친구와 자주 접촉할수록, 자녀와 자주 접촉할수록, 친구와 자주 연락할수록, 도구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자주 연락할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았다.

여성노인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교육연수, 총소득과 주관적 생활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들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선행 연구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2004년과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정순돌·이선희(2011)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학력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경제적 여건(김태현·한은주, 2004; Edwards and Klemmanck, 1973; Charfiled, 1977), 객관적·주관적 건강상태(김미령, 2012; Edwards and Klemmanck, 1973; Berg et al., 2006), 주관적 건강상태 및 주관적 경제상태(최용민·이상주, 2003; 정순돌·이선희, 2011)가 노인의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 바 있다.

<표 6>에서 여성노인의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변수는 주관적 생활수준으로 계수값은 $r=.571$ 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로 $r=.567$, 총소득은 $r=.331$, 자녀연락빈도는 $r=.260$, 자녀접촉빈도는 $r=.240$ 으로 모두 삶의 질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생활수준을 높게 인지할수록, 건강수준이 좋다고 인지할수록, 총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 자주 연락하고 접촉할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880)

독립변수	B	β
연령	-.002	-.007
교육연수	.019***	.042
주관적 생활수준	.910***	.372
총소득	.000***	.073
주관적 건강상태	.844***	.441
배우자유무	.052	.014
생활비부담의식	.193***	.053
자녀 비동거이유	.258***	.069
자녀동거의식	-.053	-.012
자녀접촉빈도	.044**	.032
자녀연락빈도	.041*	.027
정서적 지지	.226***	.091
도구적 지지	.066*	.029
신체적 지지	.044	.021
경제적 지지	.217***	.078
친척접촉빈도	.021	.016
친척연락빈도	.038*	.030
친구접촉빈도	.042**	.034
친구연락빈도	-.010	-.011
상수	2.035***	
R ² (Adj.-R ²)	.584(.582)	
F값	283.102***	

* p < .05 ** p < .01 *** p < .001

3.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효과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배제하고 새로운 모형을 구성한 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표 8). 또 각 독립변인이 독립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표 9>에 제시하였고, 이에 근거한 경로모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직접효과를 나타낸 <그림 1>, 독립변인이 친척연락빈도를 통한 간접효과를 나타낸 <그림 2>, 독립변인이 친구접촉빈도를 통한 간접효과를 나타낸 <그림 3>과 같다.

경로분석을 위한 최종회귀분석(표 7 참고)에 의하면 첫 번째 경로인 자녀접촉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노인의 개인적 변인은 주관적 생활수준, 총소득, 연령, 교육연수,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노인의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았다. 자녀연락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관적 생활수준, 총소득, 자녀동거의식, 교육연수,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 중 자녀의 지지는 대체로 생활수준, 소득, 교육연수 등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좋고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에게 더 빈번하게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경로인

〈표 6〉 변수들의 상관계수 (N=38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299	1														
3	-.143	.258	1													
4	-.232	.420	.388	1												
5	-.112	.167	.218	.158	1											
6	-.369	.274	.237	.351	-	1										
7	-.176	.071	.144	.148	.079	.155	1									
8	-	-	.121	-	.088	-.143	-.051	1								
9	-.	.100	.180	.140	.077	.047	-	.044	1							
10	-.047	.133	.241	.190	.101	.063	.051	.091	.434	1						
11	-.048	.055	.142	.081	.072	-	.032	-	.211	.252	1					
12	.124	-.107	.061		-	-.044	.063	-	.238	.209	.333	1				
13	.114	-.039	.105	-.064	-	-.048	-.065	-	.216	.221	.236	.289	1			
14	-.219	.157	.227	.159	.124	.105	.088	.097	.098	.221	.103	-	-	1		
15		-.177	-	-.093	.090	-.099	.046	.142	-.050	-	.075	.058	-	.144	1	
16	-.146	.254	.571	.331	.567	.143	.167	.167	.213	.260	.240	.114	.158	.232	.092	1

1.연령 2.교육연수 3.주관적 생활수준 4.총소득 5.주관적 건강상태 6.배우자유무 7.생활비부담의식 8.자녀비동거이유 9.자녀접촉빈도 10.자녀연락빈도 11.정서적지지 12.도구적지지 13.경제적지지 14.친척연락빈도 15.친구접촉빈도 16.삶의 질

※상관관계 유의수준 0.5% 기준으로 유의적인 계수만 제시

자녀의 정서적 지지에는 자녀연락빈도, 자녀접촉 빈도, 주관적 생활수준, 자녀동거의식, 생활비부담의식, 배우자유무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와의 연락과 만남의 빈도에 따라 노인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며, 또한 주관적 생활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노인이, 그리고 노후생활비 부담을 자신의 몫으로 인식하는 노인이 자녀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양호했다. 자녀동거의식과 배우자유무는 정서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자녀와 동거하지 않지만 노후에 기혼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여성노인이 희망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그리고 무배우 여성노인이 유배우 여성노인에 비해 자녀

의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와 함께 살지 못하는 노인에게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대신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무배우 노인에게는 배우자의 지지를 자녀가 대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8>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친척과의 연락빈도에는 여성노인의 연령, 자녀연락 빈도, 주관적 생활수준, 자녀 비동거이유, 그리고 교육연수와 주관적 건강상태의 순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연락빈도가 많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친척연락 빈도가 높았다. 또한 자녀와 비동거를 자신이 선

택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친척연락빈도가 높았다. 자녀연락빈도가 많을수록 친척연락빈도 역시 높아지는 현상은 사회적 지지 중에서 자녀의 지지와 친척의 지지가 확대가족의 범위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 중 친구접촉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육연수이며, 다음으로 자녀 비동거이유, 주관적 건강상태, 정서적 지지, 주관적 생활수준, 자녀접촉빈도, 총소득, 배우자 유무, 생활비부담의식의 순이다.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자신이 자녀와 비동거를 선택한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접촉빈도가 낮을수록, 총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무배우 여성노인의 경우 친구접촉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로부터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가족의 지지를 대신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는 개인적 변수인 교육연수, 주관적 생활수준,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생활비부담의식, 자녀 비동거이유가 유의한 변수였으며, 사회적 지지 변수 중 자녀접촉빈도 및 연락빈도, 친척연락빈도, 친구접촉빈도, 그리고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경제적 지지가 유의한 변수였다. 그러므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은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의 구조 및 기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표 8>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삶의 질에 대한 총경로효과는 <표 9>와 같다. 연령이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총효과($r=.146$)는 총인과효과($-.00067$)와 비인과효과($-.14533$)로 나타났다. 즉 연령은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녀접촉빈도를 매개로 약한 정적 영향과 친척연락빈도를 매개로 하는

부적 효과로 인한 부적 간접효과와 비인과효과를 가지므로 총효과는 부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연수가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총효과($r=.254$)는 총인과효과($.04003$)와 비인과효과($.21397$)로 나타났다. 즉, 교육연수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정적 직접효과 이외에 자녀접촉과 연락빈도, 그리고 친구접촉빈도를 매개하여 부적 간접효과를 가지나 총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이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는 독립변인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강한 정적 직접효과($.374$)와 자녀 접촉빈도 및 연락빈도, 자녀의 정서적 지지, 친척 연락빈도, 친구 접촉빈도 등의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032$) 역시 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어, 총효과($r=.571$)는 노인의 삶의 질에 강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노인의 양호한 주관적 생활수준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자녀, 친척, 친구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소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총효과($r=.331$)는 총인과효과($.08557$)와 비인과효과($.24543$)이며, 삶의 질에 직접효과 이외에 자녀접촉빈도와 자녀연락빈도를 통한 정적 간접효과를 보여 총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가 많아지며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친구접촉빈도를 통한 부적 간접효과를 보여 총소득이 높을수록 친구접촉빈도가 낮아지지만 자녀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를 통한 정적 간접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총 간접효과는 정적 효과로 나타난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성노인의 삶에 미치는 총효과($r=.567$)는 가장 강력한 직접효과($.437$)와 매개변인인 친구접촉을 통한 약한 부적 간접효과($-.00509$), 그리고 정적 비인과효과($.13509$)를 보이는데, 총효과는 정적 효과로 삶의 질에 두 번째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여성노인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표 7〉 경로모형을 위한 최종회귀분석표-1 (N=3880)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녀접촉빈도		자녀연락빈도		정서적지지	
		B	β	B	β	B	β
연령		.011**	.047				
교육연수		.015**	.045	.012**	.043		
주관적 생활수준		.250***	.139	.282***	.177	.079***	.080
총소득		.000***	.075	.000***	.097		
주관적 건강상태		.047*	.033	.043*	.035		
배우자유무						-.053*	-.036
생활비부담의식						.062**	.042
자녀비동거이유				.167***	.069		
자녀동거의식						-.089**	-.049
자녀접촉빈도						.069***	.126
자녀연락빈도						.109***	.178
R ² (Adj.-R ²)		.043(.041)		.076(.075)		.087(.086)	
F값		34.258		63.806		61.320	

* p < .05 ** p < .01 *** p < .001

〈표 8〉 경로모형을 위한 최종회귀분석표-2 (표 7의 계속) (N=3880)

독립변수	종속변수	친척연락빈도		친구접촉빈도		삶의 질	
		B	β	B	β	B	β
연령		-.042***	-.168				
교육연수		.015**	.045	-.064***	-.181	.019***	.043
주관적 생활수준		.254***	.134	.123***	.062	.915***	.374
총소득				-.000***	-.047	.000***	.075
주관적 건강상태		.068**	.045	.157***	.101	.837***	.437
배우자유무				-.120*	-.040		
생활비부담의식				.111*	.037	.201***	.055
자녀비동거이유		.195***	.068	.330***	.109	.252***	.068
자녀접촉빈도				-.060***	-.054	.049**	.036
자녀연락빈도		.193***	.163			.040*	.026
정서적 지지				.153***	.076	.233***	.093
도구적 지지						.082**	.036
경제적 지지						.218***	.078
친척연락빈도						.050***	.039
친구접촉빈도						.038**	.031
R ² (Adj.-R ²)		.121(.119)		.076(.074)		.583(.581)	
F값		88.192		35.039		412.799	

* p < .05 ** p < .01 *** p < .001

높을 뿐 아니라 자녀접촉 및 연락빈도, 친척연락 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배우자유무의 총인과효과(-.00146)는 약한 부적 간접효과이나, 비인과효과(.14446)가 강한 정적 효과로서 총효과($r=.143$)는 정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존재가 노인의 삶에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서적 지지와 친구접촉빈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갖는다. 이때 유배우 여성노인이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가 무배우 여성노인에 비해 낮고, 친구와의 접촉빈도도 적어서 삶의 질이 낮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총효과는 정적 효과이므로 유배우 여성노인의 삶의 질이 무배우 여성노인에 비해 높다.

생활비 부담의식은 직접효과(.055)와 정서적 지지, 친구접촉빈도를 통한 간접효과(.0032)로 구성된 총인과효과(.0582)와 비인과효과(.1088)로 나타나며, 총효과($r=.167$)는 정적 효과이다. 그러므로 노후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높으며, 또한 높은 정서적 지지 수준과 친구접촉빈도를 통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자녀 비동거이유는 직접효과(.068)와 자녀연락빈도 및 친척연락빈도, 친구접촉빈도를 통한 간접효과(.01031)로 구성된 총인과효과(.07831)를 보이며, 총효과($r=.167$)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노부부만의 생활을 위해 자녀와 비동거를 스스로 선택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질이 높으며, 자녀를 비롯한 친척, 친구와 빈번한 연락과 만남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더 향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접촉빈도는 총인과효과(.04055)와 비인과효과(.17245)를 갖으며, 총효과($r=.213$)는 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총인과효과는 직접효과 이외에 정서적 지지와 친구 접촉빈도를 통한 간접 효과로 구성되는데,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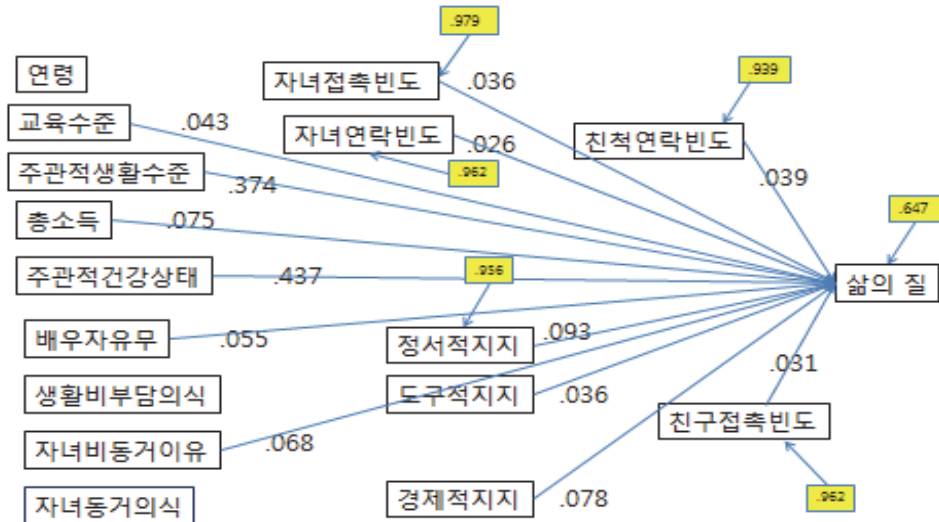
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며, 친구접촉빈도는 줄어들지만 전반적인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 자녀연락빈도는 직접 효과와 정서적 지지를 통한 간접 효과로 이루어진 총인과효과(.03824)를 보이며, 총효과($r=.260$)는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노인이 자녀로부터 제공받는 정서적 지지는 직접 효과(.093)와 친구접촉빈도를 통한 간접효과(.00279)로 구성된 정적 총인과효과(.09579), 비인과효과(.14421)로 삶의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자녀의 정서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며, 친구접촉빈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도구적 지지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약한 직접효과(.036)와 비인과효과(.078)를 보이며, 총효과(.114)는 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지지의 효과는 직접효과(.078)와 비인과효과(.080)로 구성되며, 총효과($r=.158$)는 정적 영향을 보인다.

친척연락빈도는 직접효과(.039)와 비인과효과(.193)로 총효과($r=.232$)는 노인의 삶의 질에 강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친구접촉빈도는 직접효과(.031)와 비인과효과(.061)로 정적 총효과(.092)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친척 및 친구와 자주 연락하거나 또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즉 사회적 지원이 다양할수록 여성노인의 삶의 질이 높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인과관계 및 경로에서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생활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총소득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노후생활에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최용민·이상주, 2003; 정순돌·이선희, 2011)들과 동일한 경향이다. 다음으로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연락빈도와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친척연락빈도, 자녀접촉빈도, 친구연락빈도 등으로, 자녀와 연락과 왕래가 빈번하며 정서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친척 및 친구와 자주 연락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와

〈표 9〉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총경로효과 (N=3880)

	인과효과		총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연령	-	-.00067	-.00067	-.14533	-.146
교육연수	.043	-.00297	.04003	.21397	.254
주관적 생활수준	.374	.03217	.40617	.16483	.571
총소득	.075	.01057	.08557	.24543	.331
주관적 건강상태	.437	-.00509	.43191	.13509	.567
배우자유무	-	-.00146	-.00146	.14446	.143
생활비부담의식	.055	.0032	.0582	.1088	.167
자녀비동거이유	.068	.01031	.07831	.08869	.167
자녀접촉빈도	.036	.00455	.04055	.17245	.213
자녀연락빈도	.026	.01224	.03824	.22176	.260
정서적 지지	.093	.00279	.09579	.14421	.240
도구적 지지	.036	-	.036	.078	.114
신체적 지지	-	-	-	.035	.035
경제적 지지	.078	-	.078	.080	.158
친척접촉빈도	-	-	-	.163	.163
친척연락빈도	.039	-	.039	.193	.232
친구접촉빈도	.031	-	.031	.061	.092
친구연락빈도	-	-	-	.168	.168



〈그림 2〉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접효과

같이 자녀를 비롯한 친척,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결과는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자녀의 접촉과 지지(최용민·이상주, 2003; 김종임, 2011) 또는 자녀, 이웃, 친구와의 만남과 전화빈도가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며(조용하, 2004) 이웃과 친구수가 노인의 행복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이정화·한경혜, 2003)와 유사한 경향으로서 노년기 삶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의 지지가 중요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비롯한 친척,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중회귀분석 결과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수준과 건강상태였다. 또한 교육연수와 총소득,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요인인 자녀 비동거이유, 노후생활비부담의식 등이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현재 및 미래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경제적 능력과 독립적 노후의식을 가진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 변수 중 구조적 차원인 자녀, 친척, 친구와의 접촉 및 연락빈도 중에서는 자녀와의 접촉빈도 및 연락빈도, 친척연락빈도, 친구접촉빈도가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차원 중 신체적 지지를 제외한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지지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즉, 여성노인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경로분석 결과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인 변수는 주관적 생활수준이었다. 또한 여성노인의 교육연수와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요인, 자녀 비동거이유 및 생활비부담의식 등 자녀관련요인, 자녀접촉 및 연락빈도와 자녀의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지지, 그리고 친척연락빈도, 친구접촉빈도 등의 사회적 지지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차원인 사회적 지지원과 기능적 차원인 지지 유형은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며, 개인적 요인과 자녀관련요인이 사회적 지지요인을 경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함이 입증되었다. 또한 첫 번째 경로인 자녀접촉빈도의 영향요인은 여성노인의 연령, 교육연수, 주관적 생활수준,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이며, 자녀연락빈도의 영향요인은 교육연수, 주관적 생활수준,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자녀 비동거이유였다. 그러므로 자녀의 지지에는 주로 여성노인의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경로인 친척연락빈도에는 연령, 교육연수, 주관적 생활수준,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 비동거이유, 자녀연락빈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연령이 부적 영향, 즉 연령이 적을수록 친척연락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친척과 자주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생활수준과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로, 나이가 들수록 형제와 같은 친척의 범위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현상과 관련 있다고 하겠다. 친구접촉빈도의 영향요인은 교육연수와 주관적 생활수준, 총소득, 주관적 건강상태, 자녀 비동거이유, 자녀접촉빈도, 배우자유무, 정서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이중 교육연수, 총소득, 배우자유무, 자녀접촉빈도는 부적 영향을 보였다. 즉, 교육연수와 총소득의 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으며, 자녀와 접촉이 적은 여성노인들이 친구와 더 접촉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총경로효과에서 각 변수들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인 교육연수, 총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녀접촉과 연락빈도를 매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즉,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노인들이 자녀와 활발히 왕래와 연락을 하며, 이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특히 주관적 생활수준은 자녀 뿐 아니라 친척, 친구 등 모든 사회적 지지원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노인이 지지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지지의 수준이 더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소득 여성노인이나 일상생활능력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보완할 수 있는 지지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또한 여성노인이 자녀 이외에 친구, 이웃 등의 지지원과의 교류를 유지하며 지역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에 참여해 사회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배우자유무는 삶의 질에 직접 효과는 없으나 간접 경로를 통해 유배우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었다. 유배우 여성노인이 무배우 여성노인에 비해 낮은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친구접촉빈도는 삶의 질을 낮추는 부정적 간접효과를 미쳤으나 유배우자의 삶의 질이 더 높았던 것은 배우자의 존재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친구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배우자가 자녀와 친구보다 더 우선적인 지지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의 노년기 삶에서 배우자의 존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배우 여성노인이 배우자의 사후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하며(남기민·정은경, 2011) 마땅한 지원이 없다는 선행연구(장인협·최성재, 2003)의 지적과 일

치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긴 현실을 감안할 때 배우자와 사별 후 배우자 지지를 대체할 사회적 관계와 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녀 비동거이유는 자녀 연락 및 친척연락, 친구접촉의 빈도를 통해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즉, 자녀와 비동거를 스스로 선택한 여성노인이 자녀와 자주 연락하고 친척이나 친구와 접촉하는 다양한 지지원과의 교류를 통해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부부가구 또는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지만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유형이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여성노인이 자녀의 정서적 지지를 더 제공받고 친구접촉을 통해 삶의 질을 높게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노후생활에서 자녀 의존도가 낮은, 독립적인 의식과 생활여건을 가진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해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접촉 및 연락빈도는 정서적 지지를 통해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간접효과를 보인 반면 정서적 지지 이외의 다른 유형의 지지를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는 자녀와의 만남과 연락을 통해 여성노인들이 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 변수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보면, 구조적 차원 변수 중 자녀접촉빈도와 자녀연락빈도는 주로 여성노인 개인적 변수의 매개변수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던 반면 배우자 또는 자녀 관련 요인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녀의 지지수준은 주로 여성노인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결정된 자녀의 지지수준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반면 배우자나 자녀와 관련된 요인은 자녀의 지지수준과 이를 통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자녀의 지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성노인의 개인적 특성이라고 하겠다. 또한 친척연락빈도는 주관적 생활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자녀비동거이유 이외에 매개변수로 부각되지 않은 반면 친구접촉빈도는 매개변수로서 매우 활발하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는 부적 효과인 경우가 많았다. 즉, 친구접촉빈도는 여성노인의 총소득과 교육연수, 자녀접촉빈도의 매개변수로서 삶의 질 수준을 저하시켰다. 한편 기능적 차원 변수 중 매개변수로서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서적 지지였다. 즉, 자녀의 정서적 지지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효과와 함께 친구접촉을 통한 간접효과를 보인 한편 도구적 지지 및 경제적 지지는 직접효과만을 보이고 있다. 정서적 지지는 제공되는 빈도 또한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정서적 지지는 자녀로부터 가장 많이 제공되는 유형이며 여성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 간접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반면 조사대상 여성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약 7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체적 지지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자녀의 정서적 지지가 여성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 유형이며, 정서적 지지는 다른 지지원과의 교류에도 영향을 줌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자녀변수의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자원 및 가족자원이 감소되는 노년기에 사회적 지지는 이를 보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셋째, 여성노인의 삶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나타난 만큼 사회적 지지를 규정하는 영향 요인들을 파악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구조인 자녀접촉빈도 및 자녀연락빈도에는 주로 노인의 개인적 변인인 교육연수와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및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기능적

측면인 정서적 지지에는 노인의 개인적 요인보다 배우자유무, 자녀동거의식, 생활비 부담의식 등 가족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지지 중에서도 구조를 나타내는 지지수준과 기능을 나타내는 지지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로부터 얼마나 자주 지지를 받고 있는가와 어떤 지지를 받는가는 노인에게 각각 다른 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 효과도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사회적 지지의 구조인 친척연락빈도는 자녀연락빈도가 높을수록 같이 높아졌다. 즉, 자녀의 지지를 많이 받는 노인이 친척과도 빈번히 연락하며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지지와 친척의 지지는 유사한 동기와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친구접촉빈도는 자녀접촉빈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적 지지 중 자녀가 가장 중요한 지지원이며, 자녀의 지지가 충족될 경우 다른 지지원과 접촉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나 물리적 거리 등의 이유로 빈번히 접촉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는 친구의 지지를 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때 친구의 지지가 자녀의 지지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것으로서,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자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친구, 이웃, 동호회 등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직접적 효과와 매개변수로서의 기능을 입증한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을 제공받는 여성노인의 특성이 다르며, 각 차원이 이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구조적 차원 중 자녀, 친척, 친구의 지지가 이루어지는 경향과 상대적인 중요성이 다르며, 기능적 차원의 각 지지유형의 수준 또한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과 해석, 그리고 실천적 연구가 필

요하며, 실질적으로는 노인의 개인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지원과 지지유형을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조사도구의 구성과 측정방법이 정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회귀분석을 위해서는 변수들이 등간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원자료의 한계로 인해 서열변수를 활용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교한 측정도구와 친지, 이웃, 공적 기관 등 다양한 지지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 대상으로 여성노인의 삶의 질이 남성노인에 비해 낮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여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와 그에 따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녀 노인의 삶의 질 비교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자녀의 지지가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 간접의 효과를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 부각된 것을 볼 때 자녀의 지지와 관련된 자녀의 부모부양의식 및 동거의식,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유 등 자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변수들이 추가된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후 삶에 대한 심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2), 62-76.
- 2) 김귀분·석소현(2008).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0(2), 146-155.
- 3) 김동배·김상범·심수민(2012).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1), 289-303.
- 4) 김미령(2006). 전기·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2-222.
- 5) _____(2012). 연령과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차이분석, 32(1), 145-161.
- 6) 김수현·강현정·김윤정(2008). 농어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1), 51-71.
- 7) 김윤정·안정선·강인(2008).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23-42.
- 8) 김은정·정순돌(2011). 맞벌이 가정 영유아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만족도: 양육보상감,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285-310.
- 9) 김종임(2011). 노인요양시설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및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37(1), 97-108.
- 10)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11) 남기민·박현주(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9, 405-427.
- 12) 남기민·정은경(2011). 여성독거노인들이 인지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325-348.
- 13) 림금란·김희경·안정선(2011).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 :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한국노년학회지, 31(1), 33-47.
- 14) 박경희(2005).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 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5) 박미정·엄명용(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 16) 박선영(199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박정란·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18) 박진성(2010). 성공적인 노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장년기 여가경험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9) 박현순·나동석(2008). 취업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임파워먼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008 여름호, 147-172.
 - 20) 송하정(2001).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1) 신경인(2009).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윤순덕·한경혜(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4(2), 54-77.
 - 23) 윤현숙·유희정(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24) 윤혜숙·윤가현(2003). 농촌 지역 시각장애노인의 삶의 질 연구, 한국노년학, 24(2), 57-77.
 - 25) 이원숙(1992). 사회적 망. 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6) 이금옥(2007). 농촌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요인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27) 이정화·한경혜(2003). 일과 여가활동이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2), 209-238.
 - 28) 이진숙·최원석(2014). 남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경로 연구 : 성역할태도, 사회서비스 이용정도, 자아존중감, 삶의 질 관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6, 377-404.
 - 29) 전상남(2012). Factors Relevant to Successful aging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geism,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0) 전상남·신학진(2014). 사회적 지지가 무배우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신체적·인지적 기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4(1), 87-101.
 - 31) 정경희(1997). 여성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43-52.
 - 32) _____(2012). 노인의 가족생활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0, 6-16.
 - 33)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2006). 노인 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 성공적 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4) 정순돌(2007).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인식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7(4), 829-845.
 - 35) 정순돌·이선희(2011).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 :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3개년도(1994, 2004, 2008년) 결과 비교, 한국노년학, 31(4), 1229-1246.
 - 36) 조수범(2010). 노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37) 최용민·이상주(2003). 사회적 지원망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2, 193-217.
 - 38) 통계청(2009). 2009년 고령자 통계.
 - 39) 통계청(2010). 2010년 고령자 통계.
 - 40) 한형주(2008).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 구, 39, 347-372.
- 41) Albert, S. M. & Teresi, J.A.(2001). Quality of life. In Ekerdt(Ed),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Thompson Gale.
 - 42) Arling(1990). Strain, social support, and distress in old age. *Journal of Gerontology*, 42(1), 107-113.
 - 43) Berg et al.(2006). What matters for life satisfaction in the oldest- old? *Aging & Mental Health*, 10(3), 257-264.
 - 44) Bowling, A. et al.,(2003). Let's ask them: A national survey of definition of quality of life and its enhancement among people aged 65 and over.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6(4), 269-306.
 - 45) Charfield, W. F.(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4), 593-599.
 - 46) Chou, K. L., & Chi, I.(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 47) Crosnoe, R. & Edler, Jr, G. H.(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48) Diener, E. & Emmons, R. A., Larson, R. J.,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of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49, 71-75.
 - 49) Diener, E. & Suh, E.(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s, social, and 42. Guallar-Castillon, P. et al.(2005). Differences in quality of life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older population of Spain. *Social Science & Medicine*, 60, 1229-1240.
 - 50) Edward, J. N. & Klemmack, D. L.(1973). Correlations of life satisfaction: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4), 497-502.
 - 51) Hilleras, P. K. et al.(2001). Life satisfaction among the very ol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1(1), 71-90.
 - 52) Klemmac, D. L. and Roff, L. L.(1984). Fear of personal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39, 756-758.
 - 53) Larson, R.(1977).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33, 109-125.
 - 54) Lawton, M.P.(1997). Measures of quality of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Generations*, Spring, 45-47.
 - 55) Mannell, R. & Dupuis, S.(1996).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Vol. 2. New York: Academic Press, 59-64.
 - 56) Mazure, M. C. et al.(2002). Stressful Life Event Interacting With Cognitive/ Personality Styles to Predict Late-Onset Major Depression,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0(3), 297-304.
 - 57) Norbeck, J. S. et a.l(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 264-269.
 - 58) Roberto, K. A.(1996). Friendships between older women : interaction and reactions. *Journal of Women & Aging*, 8(3), 55-73.
 - 59) Rowe, J. W., &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37, 433-441.
 - 60) Siegel, J.M. & Kuykendall, D.H.(1990). Loss, widowhood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Consulting*

- and Clinical psychology*, 58(5), 519-524.
- 61) Stewart, A. L. & King, A. C.(1994).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older population in R. P. Abeles, H. C. Gift & M. G. Ory (Eds). *Aging and quality of life*, 27-56, Springer Publishi Company : New York.
- 62) Young, K., J. and Longman, A. J.(1983). Quality of life and person with melanoma: A pilot sutdy. *Cancer Nursing*, 6, 219-225.

- 투 고 일 : 2015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5년 4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5월 7일